



대북제재 중단하고 협상 시작하라 평화와통일을어는사람들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에서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 향한 즈음 한미 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차량 감축 반발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인원감축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미화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2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민간위탁 업체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용역 결과, 기존 성상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권역별 수거체계로 전환을 위해 민간위탁 업체 직원 60여명 감축과 차량 15대 축소 등 구조조정안에 반발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아우성이 쏟아졌다. 전주시는 청소민간위탁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수거체계 도입을 위해 지난해 4월 1억2000여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

“일자리 줄여 수익성 향상 급급 감질” 분통

소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를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최종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용역안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권역안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위탁 업체 인원 60여명과 차량 15대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 민간위탁 효율화를 명분으로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환경미화원들이 전주시의 탁상행정에 배신감에 떨고 있는 것. 민간위탁 미화원들은 "별악한 근무 환경에도 묵묵히 일하는 청소원들의 근무여건은 무시한 채 민간위탁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수익성만 추구,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고작 청소 인력 구조조정이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화원들은 "전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생활폐기물 수집과 가로청소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위탁 업체 직원들은 계약직 2년으로 한정,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으로 고용불안에 떨고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처우에는 관심이 없고, 구조조정으로 미화원들의 일자리를 줄여 수익성을 높인다는 발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주시의 감질이나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전주시 14개 전주시 청소민간위탁업체와 함께 시 지역 환경미화원 노조도 열악한 근무환경을 무시한 용역 진행

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지역 환경미화원 노조는 용역안이 "원가계산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작업현장의 근무여건을 무시하고 작업거리를 일률적으로 적용,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불순한 목적의 의심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간위탁 업체 미화원들은 대부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된 조합원들로, 수거체계 개편으로 인력 감축이 가시화될 경우 쓰레기 수거 중단 등 단체행동도 우려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곧바로 시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며 "민간위탁 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생활폐기물 수집체계 개편 3월 중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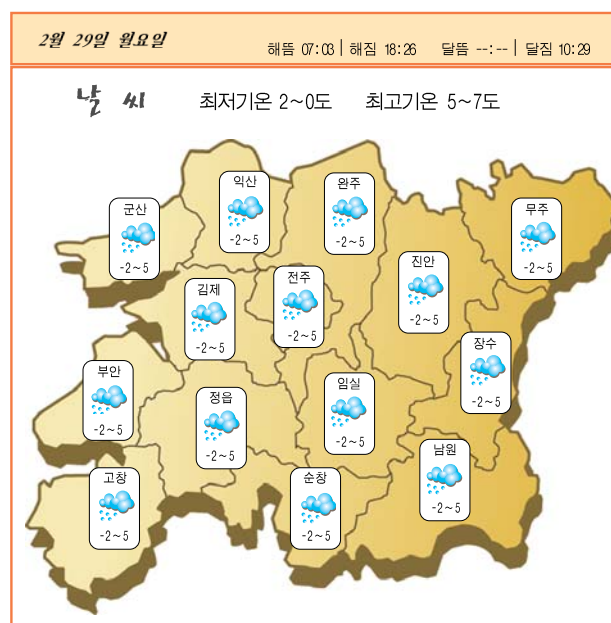
“교육·정치현안 해결 위해 행동하겠다”

전북지역 엄마들이 자녀들 교육환경을 위해 주체적 목소리를 내기로 하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전북지역 364명의 엄마들은 '교육행동 앵그리맘연대'라는 단체를 결성, 2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및 정치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행동 앵그리맘연대' 출범... 364명 엄마들 뭉쳐

이 단체는 세월호 참사와 누리과정 예산 파동 등을 겪으며 현 시국에 비판 의식을 가진 도내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주기가 다가오도록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세월호 사건과 정부 입맛에 맞게 가르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한일위안부 협상과 개성공단 사태 등의 상황이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는 것이다. 교육행동 앵그리맘연대는 "현 정권은 출범 이후 세월호 참사와 국경교과서 추진, 개성공단 폐쇄, 굴욕적인 한일위안부 협상 등으로 끊임없는 논란

을 일으켰다"며 "이제 더는 엄마들의 무지와 방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망 끝으로 내몰리도록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앵그리맘연대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정권에서는 학교도 아이들이 안전할 수 없기에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엄마들 방식의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총선을 맞아 엄마들의 요구와 반대되는 의정 활동을 전개한 정치인을 밝혀 공개하겠다"고 말해 총선을 앞둔 이들의 파장이 주목된다. /고민형 기자



3월 개학 앞두고 '독감 비상'

도교육청, 학교에 예방 당부

3월 개학을 앞두고 독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교육청은 28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분율이 유행기준 1,000명당 11.3명을 초과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개학 전에 비누 및 수건 등을 점검해 보안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완료하고 인플루엔자 증상자에 대해선 등교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학 후에는 학생들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병원 진료를 안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위생 청결과 기침이 심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중화산2동 주민센터 하늘정원 조성

시, 1억 확보 3월말 착공 계획

전주시가 도심 속 녹색 힐터 공간 조성을 위해 폐쇄된 건물옥상을 하늘정원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국비 등 총사업비 1억원을 들여 중화산2동 주민센터 옥상에 하늘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중화산2동 주민센터 옥상면적은 총 440㎡로, 현재 일부공간에 고추와 토마토 재배 화분만 있을 뿐 나머지 공간은 버려져 있는 공간이었다. 이에 시는 사용 않는 건물 옥상을 기반공사를 거쳐 수목식재와 빗물활용시설 등 설치해 친환경 녹색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한 옥상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접목시키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근무자 및 주민센터 이용자들의 힐터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산책로와 파고다, 벤치도 설치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대상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거쳐 현재 설계를 진행 중으로, 설계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오는 3월말에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하늘정원 조성이 완료되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녹색 힐터를 제공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는 아름다운 녹색 도시경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녹색 힐터를 제공하고 녹색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삼천1동 주민센터와 송천2동 주민센터, 중화산2동 주민센터, 자연생태박물관, 덕진청소년문화회집, 효자동 양지노인복지관 등 6곳을 대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해왔다. /김영재 기자

